

“속초에 사는 공무원들 모두 돌아오라”

시군통합 반대추진위원회 발족식서 촉구... 향후 활동방향 '반대논리 개발·제외 요청·투표 거부'

“상경기 회복 위해 민·관·군 협력해야” “고성군과 군의회가 성장동력 만들어야”

지난달 30일 열린 시군통합 반대추진위원회 발대식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향후 활동방향 논의'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행정개편 추진위원회를 찾아가 통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거나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 패처럼 투표 거부 활동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속초에서 생활하는 공무원들을 성토했고 이들이 고성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종락 간성은 변영회장은 “일부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인

구 유출과 상경기 침체, 교육문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상경기 회복을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균 고성21 공동대표는 “이번 기회에 반대활동을 강력하게 하면서, 주민들이 고성군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 한다”며 “고성군과 군의회가 적극 나서서 성장동력을 만들고 고성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반대추진위가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인한수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은

“농업인 단체들은 정부에 반대를 많이 하는 단체인데, 오늘 발대식에서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섭섭하다”며 “앞으로 농업인 단체들도 반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특히 임북천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장은 “속초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30%다. 이 차제에 군수가 잘해야 될 것 같다. 왜 월급은 고성에서 타고 속초에서 쓰는가. 이윤배반적인 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이래서 속초가 우리를 자꾸 얕본다. 고성

수복 이래 60년 동안 살아왔다. 젊은이들이 꼭 고성군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울먹이듯 말했다. 함형완 군의원은 “반대추진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반대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현실과 이론에 입각해서 통합 후의 피해를 분석하고, 중앙을 찾아가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중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적극적인 투표 거부 운동까지 펼쳐야 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신장애우 사회재활·아동청소년 정신증진 교육 프로그램 우수성 인정

고성군보건소(소장 홍영순)가 강원도와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주최한 정신보건사업 평가에서 강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일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프로그램은 정신 장애우 사회재활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정신증진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신 장애우 사회재활 프로그램은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토끼이리, 입화, 쿠키, 클레이, 댄스, 배드민턴 등 친숙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습득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점이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도자기공예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를 유도하고, 작품의 완성을 통한 잠재력 개발과 창조적인 활동으로 정신장애우의 건강한 정신기능 회복을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증진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 정신장애인의 사회 인지능력 향상은 물론 관내 아동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및 복귀를 돕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고성군보건소는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군장병,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도 지켜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2012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12월 한달간 ... 모금 목표액 4천32만원

고성군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12월 1일부터 31까지 '희망 2012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목표 금액은 4천32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분청과 5개 읍·면 주민생활지원팀에 성금모금 접수창구를 개설해 성금을 접수하는 한편, 오는 27일 간성읍 상리~신안리 구간에서 여성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등 10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가두모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참여방법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면에 방문해 직접 접수하거나, 가두모금 캠페인 때 모금에 참여하면 된다. 또 ARS 060-700-1212(1 통화당 2천원적립) 전화모금에 참여해도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이웃사랑캠페인 성금모금운동을 계기로 도움이 절실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영화 속 심해괴물, 실제 모습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 생물전시실' 개관... 80여종 전시

한국해양연구원(원장 강정극)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죽왕면 소재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서 해양심층수 취수관을 통해 인입된 생물을 전시하는 '해양심층수 생물전시실'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한 해양심층수 생물전시실에는 동해 수심

200m 이상의 심층수역에서 식하는 해양생물 약 80여종(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 생물 등 박제 32종, 액침 48종)이 전시된다. 박제 표본 전시물은 꼼치, 칠성갈치, 우렁성치 등 32종, 액침 표본 전시물은 분홍꼼치, 고무걱정어, 물렁가시붉은새우

등 48종이다. 전시실에서는 이외에도 해양심층수와 심해생물에 관련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해양과학서적, 관련 상품을 둘러볼 수 있어 해양심층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관계자

는 해양심층수 생물전시실 개관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심해 생물들을 전시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해양과학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육상 수자원의 오염 증가, 일본 원자력 발전 사고에 따른 오염 우려 등으로 가중된 국민 불안을 해소



지난달 30일 오후 1시 죽왕면 소재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서 열린 '해양심층수 생물전시실' 개관식.

하고, 해양심층수의 안전성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